

14-83 to 14-86: 우리는 새시대의 심판자

hdhstudy.com/1964/14-83-to-14-86-%ec%9a%b0%eb%a6%ac%eb%8a%94-%ec%83%88%ec%8b%9c%eb%8c%80%ec%9d%9f

우리는 새시대의 심판자

1964.06.09 (화), 한국 전본부교회

14-83

우리는 새시대의 심판자

1차 의식(상오 7시)

[말씀 요지]

지금까지는 주기 위한 소모의 역사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거두고 흥할 역사인 것이다.

오늘 3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 실제 사탄 굴복 의식은 본연의 세계의 전권을 가지고 선의 주권을 세워서 심정을 중심하고 통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식이다. 이제는 종과 아들을 세우고 아버지의 사명과 어머니의 사명을 하는 부모를 세워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주어진 것을 거두시고 의의 공적을 세워서 새시대로 넘어가신다.

지금까지는 성신시대를 탕감하기 위하여 성신도 타락인간의 입장에 있었지만, 이제부터 성신은 불의를 직접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잘못을 방임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선한 영계를 동원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이제는 아버지를 직접 모셔야 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왔다.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탕감을 하기 위해서 역사(役事)를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탕감을 시키기 위한 역사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신의 입장에 서야 한다. 또한 개체가 아닌 전체를 대신한 공적인 존재로 서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으로 공적인 의를 행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것을 무시하고 공적인 입장에 서라. 모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자녀의 자리에서야 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하여 책임을 추궁한다.

복귀는 부자(父子)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야 모든 은혜를 거두고 모든 도인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제부터는 모든 도인들이 이곳을 향하여 들어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성신을 대신하여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전체를 바쳐야 한다. 또한 공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순응해야 한다. 설혹 그 명령이 그릇된 것이라도 순종을 하면 그것은 은사로 바뀌어진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지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모든 은사를 결실해야 한다.

이 식은 신령이 갈라진 것을 다시 합해 주는 식이다. 자기보다 뜻을 위한 걱정이 커야 한다. 지금까지는 탕감의 수고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적을 세우기 위한 수고이다.

지금까지는 성신이 간접적으로 역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여러분도 선생님을 대신하여 역사하라. 낮 12시에 거행하는 2차 식은 불의를 용납치 않고 갈라졌던 하늘과 땅을 다시 합하고, 또한 영계를 동원하여 새로운 명령에 의한 새로운 싸움을 전개함으로써 지상에서 사탄의 실체를 청산하는 식이 된다.

14-84

기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은 빛과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꽃은 모든 결실을 말합니다. 부모를 중심한 새로운 법도를 세우시옵소서. 아멘.

14-85

훈 시

자기가 낳은 아들딸은 남에게 맡기지 말라. 부모가 몸이 약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경우에는 아이를 자기의 만아들 같이 사랑해 줄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아기를 기르는 것은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선생님 애기는 정성들인 부모들이 길러야 한다.

사람은 가정과 국가와 하늘에 대한 3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잘사는 것은 만민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한다.

땅에다 선한 것을 남기려 하는 것이 복귀섭리역사이기 때문에, 부모가 선한 입장에 서면 하나님은 그 부모의 좋은 점을 닮게 하여 자식을 주신다. 남편을 위하여 부인은 정성껏 밥을 지어 바쳐야 한다.

여러분은 남에게 줄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 바로 말씀을 주는 것이다. 한국은 제일 선한 것을 세계에 주어야 한다.

앞으로 축복가정들은 도의 세계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방에 널려 있는 모든 도인들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을 향해서 나갈 때는 아무런 말이 없지만 자신이 직접 중심에 서려면 사방에서 공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영통인들이 뜻 앞에 많이 설 것이다.

우리는 뜻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뜻에 의해 살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아기가 '아빠' 하고 부를 때, 그 소리를 아기 하나의 소리로 듣지 않고 전체 아기의 소리로 듣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련을 거친 뒤에 은혜를 주신다. 선생님은 머리가 센 것을 볼 때마다 이 정도의 연령에 이를 때까지 이 정도의 일밖에 못한 것을 놓고 서러워한다. 아버지가 열 번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한번이라도 눈물을 흘려야지.... 아버지를 만난 자리에서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은 역사적으로 흘려왔던 피와 땀과 눈물과는 다른 것이다. 나라를 찾아온 아버지를 그 나라에서 만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자.

하루의 기분 때문에 전체를 잡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신 후에 아담 해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먼저 환경을 화평으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슬픔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병이 된다. 이 슬픔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하든가 고생을 해야 된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것에 의해 상급(賞級)이 결정된다. 예수님이 만민을 위하여 몸에 상처를 가지고 가셨으니, 우리도 몸 어디엔가 민족을 위해 흠을 남긴 것이 있다면 영광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14-86

2차 의식(정오)

[말씀 요지]

말씀 앞에 불의가 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에 의하여 사탄세계에는 공포가 온다. 앞으로는 말씀을 중심으로 장자의 기업을 뺏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전함에 따라서 영인들도 협조를 한다.

아침에 행한 식은 심정심판의 조건을 세우는 식이었고, 낮에 행하는 식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 앞에 서서 갈라졌던 하늘땅을 합하게 하는 조건을 세우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세상의 비방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는 활동하는 만큼 널리 퍼질 것이다.

14-86

3차 의식 (하오 11시)

[말씀 요지]

1차, 2차에 이어 이번의 식은 인격심판의 조건을 세우는 식이다. 나라(대한민국)에 대한 식은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세계를 위한 식은 안 해도 좋다. 국가와 교회가 수난을 받는 것은 사탄실체를 굴복하는 기준이 된다.

양심을 속이지 말자. 이것은 하늘에 기록이 된다.

생명수에 무엇을 태웠다. 이것은 모세가 우상을 태워 물에 타서 먹는 것과 같이 사탄을 태워 먹는 것이다. 승리자의 쾌감을 갖고 계속 수고로써 나아가면 자기의 실적으로 남아진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조건을 세웠으니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자신을 가져라.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